

데스크 시각

전당을 전당답게

(아시아문화전당)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2006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4.7대 1이었다. 당시 신입생 정원은 30명. 고급 문화 인력 양성을 내건 국내 최초의 대학원이라는 타이틀 덕분인지 전국 각지에서 141명이 몰렸다.

그렇다면 ‘그렇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 전당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은 10여 명 안팎(정규직 기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5년 11월 전당 공식개관과 함께 위탁 운영기관이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현 아시아문화원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당시 근무 인원 160명 가운데 70명이 계약 만료로 전당을 떠났다.

은편칼럼

용산 약수터 보존해야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용산 약수터는 제석산 치마봉과 아리랑 고개 사이에 있는 자연약수터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 동구 용산동에 소재한다. 봉선동 쪽에서 돌아오고 뒷길을 따라 치마봉에 오른 후 아리랑고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산자락 밑에 고즈넉이 돌아앉아 있다.

옛 어른들에 의하면 피부병 환자나 나환자들까지도 그 물을 마시고 나았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고, 더 옛날에는 효천면(남구쪽)과 효지면(동구쪽)의 경계에 있어 효천(孝泉)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구전(口傳)되는 유서 깊은 약수터다.

옛 어른들에 의하면 피부병 환자나 나환자들까지도 그 물을 마시고 나았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고, 더 옛날에는 효천면(남구쪽)과 효지면(동구쪽)의 경계에 있어 효천(孝泉)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구전(口傳)되는 유서 깊은 약수터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용출량이 일정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그 물을 마시고 배탈 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약수터가 며칠 전 갑자기 사라졌다. 용산지구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매립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용산지구가 동구청과 LH공사에 의하여 아파트 단지로 본격 개발되면서 폐쇄 조짐은 감지되었다. 첫 위기를 맞은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등산길에 보니 커다란 현수막에 용산 약수터를 2016년 8월 15일부터 영구폐쇄 한다고 게시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주민들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 한마디씩 했다. 약수터를 영구 폐쇄한다니 그림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 나머지 그것을 본 손간 어떻게 하던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소관 부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마침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배너가 있었다. 우선 거기에 약수터 보존을 건의기로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의도적이러군 생각지 않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민원을 올릴 수 있었다. 회원가입을 하려니 아이폰(i-pin)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했고 행차부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발

개 과 40명에서 1개 과 8명의 ‘미니 조직’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기관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당장 선임과 직급 승격도 시급한 사안이다.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지원이 가능한 현 ‘전문 임기제 가급’으로는 전당의 위상에 걸맞은 적임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구성했던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전문성을 갖춘 중량급 있는 인물을 영입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정원 제한에 묶여 비정규직으로 꾸러 가고 있는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형적인 조직도 수술 대상 1순위다. 최근 아시아문화원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E등급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들러리 조성위’ 탈피해야

무엇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정상화는 조성사업의 ‘핵심 퍼즐’이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조성위는 총리급의 위원장과 10여 명의 조성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스케일이 무척하게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초창기 조성사업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에 전혀 쓴소리를 못 내 ‘들러리 조성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도약기에 진입한 조성사업을 위해선 조성위

가 사업 주체인 문제부와 문화전당 및 광주시를 중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조성사업은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예산, 조직,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 못지않게 7대 문화권 사업과 주요 현안을 풀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근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좋은 시험대다.

물론 옛 전남도청은 5·18 항쟁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1980년 ‘그날’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데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상당 부분 변형이 된 현 상황에서 복원 과정의 예산과 전당의 운영 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전당 랜드마크 논란과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놓고 2~3년간 전면 중단했던 전당 건립 사업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수년간의 논란으로 지연돼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흘러보냈기 때문이다. 두 번 다시 전당의 ‘잔혹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난다. 문재인 정부의 5년도 결코 길지 않다. /jhpark@kwangju.co.kr

社說

‘탈핵 시대’ 지역 에너지산업 도약의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엇그제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근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좋은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엇그제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근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좋은 시험대다.”

정치 현실 인정 협치의 코드로 전환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 정국의 늪에 빠지면서 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분위기다. 우선 ‘강경화-안경환’ 파동으로 내각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려면 개혁 정책을 집행할 순발이 절실한데 임명된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 9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3개 부처 장관은 아예 인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의 대치로 국회 상임위가 파행 운영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민생 법안이 폐류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2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단 한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정부조직 개편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통일외교안

상해 전국(3만7078GWh)의 2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셈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여력은 충분한데도 그동안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미흡해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920MW로, 전국(3615MW)의 25.5%에 그치고 있다. 풍력발전 설비용량도 137MW로, 전국(853MW)의 16%에 불과하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전남에 선제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는 물론 한전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 낼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無等鼓

중앙공원

1853년 부지를 확보한 후 경관 설계를 했고 조경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했다. 1966년부터는 국가사적지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광주에도 중앙공원이 있다. 면적이 294만㎡로 센트럴파크와 비슷하고 오나시스 저수지와 같은 풍양호수(저수지)도 있다. 하지만 위상이나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광주시가 중앙공원을 포함해 10개의 민간공원을 사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기 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박현미 광주시 민생경제과장

#1. 광주시 복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뿔 듯이 기뻐했다. 그것도 잠시, 곧 등록금 걱정에 한숨부터 나왔다. 목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광주시청 채무회령행복상담센터에서 서민대출 상담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었다. 상담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뒤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신청했고, 등록금 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40대 여성 B씨는 사업에 실패하자 급한 마음에 대부분채에서 2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여의치 않은 형편에 고금리의 대출금을 갚으며 한숨어하고 있었다. 그녀도 상담과정을 통해 ‘바꿔드림론’을 알게 됐다. 27.9% 고금리 대출금을 10.5%로 전환할 수 있었고, 원리금 부담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지금은 여웃 돈을 저축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위 두 사람은 채무로 인해 겪던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니깐 대표적인 사례다.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이기도 하다. 평범하게 살다가도 갑작스레 가족이 큰 병을 앓다가 빛을 지기도 한다. 잘못된 투자나 사업,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르는 사례들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동구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한 60대 남성은 운영자금에 마련하기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로 3년 상환 2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서 이차 차액을 보전 해주기 때문에 1년까지는 1%대 금리로, 2년째부터는 고정금리가 3.3%대 수준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 바로 광주시청 1층에 있는 채무회령행복상담센터다. 광주시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채무조정과 서민대출, 복지와 주거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총 3800여명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채무조정과 재무 상담 1400여건, 복지주거상담 150건 등 총 1550여건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미워 짐작하고 공상 고금리 대출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전화, 문자메시지, SNS에서 대출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 대출이라며 상냥한 목소리

알고 있을까? 영구보존한다면 지난번 답변은 뒤고 이제 와서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적어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적(公的) 건의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개인의 민원처리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수질이 나쁘면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약수터 자체를 없앤 일은 아니지 않은가? 자연은 보존할 때 개발 이상의 혜택을 줄 때가 너무도 많다. 개발논리에 밀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유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시아 문화 허브를 꿈꾸는 동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편익의 지향적인 지향으로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존 의지가 있다면 매립한 흙을 다시 파내면 된다. 단행히 약수터는 아파트단지의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다. 백여 평 정도만 약수터부지로 할애하여 아름답게 조성하고 보존한다면 향후 아파트단지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또 다른 광주의 명소가 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리로 전화상담을 하다가 일단 20%가 넘는 대출상환을 권하기도 한다. 3개월 동안 잘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라 한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회령행복상담센터(613-6700-3)를 통해 희망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Table with 4 columns: Section, Title, Author, Contact Info.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